

[기획] >> 3면
4B운동, 20대 가치관의 전환점

[기획] >> 4면
우리학교 총장선출제도 역사

[사회] >> 9면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과 상생의 길

[인물] >> 12면
서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만나다

변화하는 총장선거, 민주적 외대를 위한 첫걸음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번 해 11월 29일 시행될 제 12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권 5%를 행사한다. 총장후보선출규정 변화 후 첫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총장후보선출규정의 역사와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사진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우리학교 GTEP 사업단, ‘2021 대학생 무역캠프’서 최우수상 수상해

지난달 23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 ‘2021 대학생 무역캠프’ (이하 무역캠프)에서 우리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 사업단) 전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무역실무 교육△수출입 과정△실무 서식 작성 실습을 통해 실제 무역을 경험하는 국내 유일의 대학생 무역 특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 참여한 우리학교 GTEP 사업단은 △김재환(통번역·아랍어 16) 씨△신유진(동유럽·우크라이나 18) 씨△탁가현(통번역·이탈리아어 18) 씨로 이뤄진 2팀과 △김민규(경상·GBT 17) 씨△김보겸(통번역·마인어 16) 씨△박수빈(통번역·태국어 18) 씨△박찬주(서양어·스페인어 18) 씨△한혜주(통번역·영어 18) 씨로 이뤄진 5팀으로 구성됐다.

2팀은 말레이시아 내 건강식품 수요 증가와 높은 비탄율을 근거로 무설탕 잼 수출을 제안했다. 5팀은 미국 내 한국 애니메이션의 높은 인기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증가한 아동 장난감 수요를 근거로 장난감 수출을 애기했다. 5팀으로 참여한 박수빈(통번역·태국어 18) 씨는 “그동안 동남아 시장을 주력으로 활동했기에 한 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미국 시장에 관한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며 “미국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 SNS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 점을 공략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2팀으로 참여한 신유진 씨는 “그간 사업단 활동을 통해 몸소 체득했던 실무 경험이 디딤돌이 됐다”며 GTEP 사업단 활동이 무역 캠프에서의 활약에 큰 도움이 됐음을 강조했다. 백재승 우리학교 GTEP 사업단장은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며 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한편 GTEP 사업단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는 사업단이다. 약 15개월간 480시간 이상의 △온라인 해외 마케팅 실습△무역 실무△전시회 참가△전자상거래△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현장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있다. 특히 우리학교 GTEP 사업단은 △북미△아시아 △유럽△중남미 등 4개 권역에 특화돼 있고 각 지역별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무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우리학교 모바일 앱 접속 불량 문제 지속돼

우리학교 모바일 ID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 서버 다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앱 접속 오류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관 좌석 예약의 불가다. 서버 다운으로 인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소수의 학생만 열람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양선혜(경상·GBT 20) 씨는 “공부를 위해 오전부터 도서관에 갔는데 모바일 앱이 작동하지 않아 자리를 얻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부터 우리학교는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정시) 계정과 도서관 계정을 연동시켜 하나의 계정으로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생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종정시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동된 모바일 앱 또한 오류가 생긴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긴급 점검 기간△다수의 사용자 동시 접속△교내 정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 전체의 서버가 다운되기에 앱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권남도 서울캠퍼스 도서관 정보봉사파트 담당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인

안된다면 모바일 앱에서도 열람실 예약 등의 오류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양캠퍼스의 도서관은 주기적으로 서버를 점검하고 점검 전 도서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사전 공지를 하고 있다. 앱 서버가 다운됐을 경우 학생증 미소지 학생을 배려해 당일 자율배석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앱 사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모바일 앱 개선이 시급하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앱 오류가 발생한 즉시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VOX(Voice of customer)’ 체제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학생은 당일 내 오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이하 고대)의 경우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을 실행 중이다. 고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학교 모바일 앱의 보안성과 범용성을 확보했다. 이처럼 모바일 앱 오류에 대한 우리학교의 신속한 대처 시스템 구축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2021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25 ~ 03.03	03.28	04.16	04.30
2회	04.29 ~ 05.05	05.30	06.18	07.02
3회	08.05 ~ 08.11	09.05	09.24	10.08
4회	10.21 ~ 10.27	11.21	12.10	12.24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초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우리학교, 서울 캠퍼스타운 신규사업 ‘ESG 착한 창업 생태계 조성’ 선정돼

지난달 31일 우리학교가 서울 캠퍼스타운 신규 사업 'ESG* 착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서울시로부터 약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음 해부터 2024년까지 해당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은 △공공△대학△민간이 협력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이로써 지난 2019년부터 3년 간 서울 캠퍼스타운의 단위형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은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상권△주거△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종합형 사업과 청년활동 증진을 위해 대학별 특성화에 맞게 진행되는 단위형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학교는 'ESG 착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단위형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 캠퍼스타운 신규 사업을 총괄하는 김병호 우리학교 GBT학부 교수는 "ESG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학가의 ESG 기준

및 표준을 마련하겠다"며 "△비주요 오픈 스튜디오 구축△친환경 데이터 기반 창업 조성△ESG 기업가 정신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뿐 아니라 동대문구 지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체 및 창업 경력이 풍부한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참여를 통해 실무 중심의 창업·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할 계획이다. 사업을 진행할 물리적 공간도 '문화상점 이문일공칠(이하 이문일공칠)' 건물 위주였던 지난 사업 때보다 확장된다. 사업 집행에 관여하는 오세종 우리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하 오 교수)는 "이문일공칠과



▲ '문화상점 이문일공칠' 건물의 외부 모습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앞 우리학교 소유 건물을 이용해 ESG 가치를 교육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며 "다음 해 1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전했다.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생 수업 과정에서 ESG 컨설팅을 가르치는 대학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학교가 이번 ESG 가치 교육에 발빠르게 착수한 것에 대해 오 교수는 고무적이란 소감을 덧붙였다.

우리학교는 2019년에 단위형 사업에 선정돼 약 15억 원의 지원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문

스프링사업단 설치△거점 및 상권 허브 연계△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2019년 11월 설캠 앞 '외대서림'이 운영되던 부지에 이문일공칠이 새로 개점됐다.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고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문일공칠은 서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카페 시설도 겸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문북클럽 △독립출판 지원사업△창업지원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해 지역민과 대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ESG: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요소.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해

지난 10일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이 '중남미학 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에르난 코르테스의 멕시코 원정 500주년을 통해 본 문명의 대전환' 학술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경희대학교 중남미 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원△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 연구소△한·중남미 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유왕무 우리나라 스페인어문화회장△임상래 우리나라 라틴아메리카학회장△황경태 중남미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김원중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이하 김 교수)가 '코르테스와 아메리카 정복'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교수는 "오늘 학술대회는 '문명의 대전환'이란 큰 주제 아래 중남미의△문화△생태환경△역사 등

을 아우른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주제가 중남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의미 있고 시기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중남미는 지난 60여년과 우정과 협력을 쌓아왔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왔으며 중남미는 이제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 지역이기도 함을 강조했다. 그 사례로 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한·스페인 정상회담△한·콜롬비아 정상회담 등을 들으며 중남미 지역을 향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문명의 충돌과 그 너머△한-멕시코 교류 증진 방안△탈식민주의와 안데스 문화△라틴아메리카 문명의 전환과 트랜스아마존△전환기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중남미 생태환경 위기와 그 대안이라는 총 6개의 부분으로 이뤄졌다. 강연이 끝난 후 전용갑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장(이하 전 소장)의

폐회사가 이어졌다. 전 소장은 "에르난 코르테스의 멕시코 원정 500주년을 기억하며 마련한 자리였던 만큼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평가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행사의 의미를 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소 내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협업 체제의 연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중남미 연구소끼리의 공동 연구 확대를 강조했다.

중남미연구소의 HK+ 사업단은 현재 지구촌이 당면한 생태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을 중남미 지역 연구를 통해 모색하고 있다. 전용갑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장은 "△사회과학적△인문학적인 환경학적 관점에서 중남미를 고찰해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인류 지향적 미래 인식체계를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권에 근거한 중남미 연구소의 활동은 인류문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시도로서 중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는 1974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중남미지역 전문연구기관이다. △1980년대에는 인문과학 연구△1990년대엔 사회과학 중심 지역연구△2000년대엔 환경학과와의 융합을 통한 자연과학 중심 연구를 중점적으로 활동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남미 환경정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이란 결과물을 냈다. 이 같은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는 HK+ 사업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고 이를 사회적·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 제45회 모의유엔총회 개최해

지난달 2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주최로 제45회 모의유엔총회가 개최됐다. 해당 행사엔 △독일△미국△베트남△영국△일본△한국 등 총 15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총회의 의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이었다. 총회는 △개회식△소개 영상△본 총회△폐회식의 순서로 이뤄졌다. 본 총회에선 의제를 소개한 뒤 각 국가가 입장을 발언한 다음 결의안을 논의하고 채택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최종 결의안엔 △국제적인 농식품 공급망 형성△선진국의 기술 지원 방안 모색△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 강구△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강화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김예슬(사회·정의 18) 모의국제연합 사무총장(이하 김 사무총장)은 의제 선정 이유에 대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으로 가장 시의성 있는 문제가 식량 위기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최를 맡아줄 기관과 기업을 찾는 것이 힘들었고 코로나19의 장기화 역시 총회 개최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구성원의 노력이 모여 총회가 조금씩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은 1958년 창설돼 이번 해 63년을 맞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생 외국어 학술단체다. '국제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한 △자유△평등△박애'란 유엔(UN)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실제 유엔의 의사 규칙에 의거해 각국 대표가 해당 나라의 언어로 발제한다. 관련 내용은 6개의 유엔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스페인어△아랍어△영어△중국어△프랑스어와 한국어로 통역된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후문에서 흥기든 남성 출몰해

지난달 29일 새벽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부근에서 흥기를 들고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칼을 소지한 채 후문 부근을 배회하다 29일 오후 8시 경에 강제주행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폭행과 위협을 당한 사례가 올라왔다. 이 남성은 정신병력이 있어 과거에도 폭행 및 소란 등으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해 초부터 이 남성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해당 남성의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동대문구청에서 입원 행정 조치를 취하려 했다. 그러나 가족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후문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를 접한 우리학교 학생들은 해당 지

역을 지나가는 행인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 부근에서 자취를 하는 노규민(상경·경제 19) 씨는 "우리학교 주변에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게 유감스럽다"며 "평소에도 늦은 밤에 그 지역 부근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더욱 조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남성을 조속히 행정입원 처리하고 치안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 치안을 담당하는 외대사랑순찰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지난해 1학기부터 모집이 중단됐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 10. 18(월) ~ 10. 22(금)	2021.11. 22(월) ~ 11. 26(금)
면접전형	2021. 11. 6(토) 10:00	2021. 12. 11(토) 10:00
합격자 발표	2021. 11. 9(금) 16:00 예정	2021. 12. 24(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1. 11. 22(월) ~ 26(금) 예정	2021. 12. 27(월) ~ 31(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모 집 전 공
교육학 석사 (아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어린이영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독서논술교육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합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학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B 운동, 젠더 이슈에서 20대 가치관의 전환점으로

20대를 중심으로 △연애△성관계△결혼△출산을 하지 않는 4B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다. 4B운동은 여성혐오와 가부장제에 대한 반발 등 젠더 이슈에서 시작됐다. 한편 4B 운동은 젠더 이슈뿐 아니라 20대가 기존 관념과 다른 선택을 하

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젠더 이슈에서 시작된 4B 운동, 문화 현상으로서의 확장△우리학교 학생들의 4B운동에 대한 인식△바람직한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

◆젠더 이슈에서 시작된 4B 운동, 문화 현상으로서의 확장

4B 운동은 2018년 언론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영상 제작자△디지털 장의사 △웹하드 업체간의 유착관계인 ‘웹하드 카르텔’이 폭로됐을 때 처음 등장했다. 이전에도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기조가 있었고 페미니즘 담론에서도 비혼과 비출산을 내세웠으나 본격적으로 연애와 성관계를 거부하는 움직임은 웹하드 카르텔로부터 시작됐다. 웹하드 카르텔의 가장 큰 수익엔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이 있었다. 4B는 이에 가담한△웹하드△불법촬영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뿌리뽑기 위해선 비연애와 비성관계까지 실천해야 한단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는 4B 운동이 웹하드 카르텔과는 관계없이 가부장제와 여성혐오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이뤄지고 있다. 4B 중 하나인 비혼 선언도 자유로워졌다. 지난해 11월 방송인 사유리는 ‘비혼출산’을 공개했다. 사유리는 이성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고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사유리는 비혼 출산한 아이와 함께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08년 비혼 출산을 선택했던 다른 여성 방송인인 허수경에게 ‘아버지가 없는 가정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동학대다’고 비난하던 사회 분위기에서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페미니즘 담론과 4B 운동이 가부장제에서 벗어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려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비연애△비성관계△비혼△비출산을 일컫는 4B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청년 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7%가 향후 결혼 의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혼이나 혼자 사는 경우에 대해선 약 48%가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약 7%에 그쳤다. 연애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0대 미혼자도 약 37%로 과반수를 넘지 않았다. 신언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해당 결과에 대해 “△연애△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바뀌었으나 사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학생의 4B 운동에 대한 인식

2019년 한겨레 젠더 매체 ‘슬랩’이 한국리서치를 통해 ‘20대 연애 행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4B 운동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약 69%였다. 이전 세대가 △연애△성관계△결혼△출산을 필수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금의 20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한단 분석이다.

외대학보는 우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달 6일부터 9일까지 4B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4B 중에선 비출산을 하겠다는 응답이 약 59%로 가장 높았고 비혼을 하겠다는 응답은 약 4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중 어느것도 해당하지 않는단 응답 또한 약 41%를 차지했다. 4B중 어느 한 가지라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51%의 응답자가 취업난을 원인으로 꼽았다. 주거 문제가 이유라고 답한 응답자도 약 38%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 4B 운동이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은 이유론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62.1%△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문제가 55.2%△페미니즘으로 인한 인식 변화가 41.4%로 각각 낮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약 62%의 응답자가 4B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해결되면 △연애△성관계△결혼△출산을 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B 씨는 젠더 이슈에서 시작된 4B 운동이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게 된 점에 주목한다. B 씨는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을 지라도 △연애△성관계△결혼△출산은 남에게 강요하거나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인식 문제에 정치권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C 씨는 “지속적인 대화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놔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20대의 사고방식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후보의 공약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하 이 후보)가 발표한 여성 대상 공약 중 ‘4B 운동 지양 방안’이 문제가 됐다. 후보의 공약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가부장제 철폐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해 고민하기보단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정상가족 구도를 답습하는 공약이란 지적이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해당 공약은 주거 불안정, 디지털성폭력 등 20대 여성이 처한 현실을 외면했다”며 “여성은 가정을 돌보고 남성은 생계를 부양한단 이분법적 구도에서 나온 공약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4B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겠다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발언이 4B 운동의 배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및 성평등 공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이하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고용 평등△돌봄△여성 건강권△젠더폭력 등 4대 영역에서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달 7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강경한 대응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 및 성평등 공약에서 더 나아가야 한단 시각도 있다. 비혼과 비출산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가구가 등장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D 씨는 “20대가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저성장 시대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느낀다”며 전체적으로 청년 삶의 질 상승이 필요하단 생각을 전했다. 민가영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는 4B 운동에 대해 “그동안 여성에게 부과됐던 사회적 성 역할이 개인의 성장 기회에 걸림돌이 된단 인식도 함께 작용한 결과”고 말했다.

4B 운동에서 시작된 담론이 20대 청년의 사고방식을 바꾼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개인의 성장△타인에 대한 돌봄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가부장제에서 켜워지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별에 국한되지 않은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세대는 기존의 가부장제와 정상성에 따른 삶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지금, 인식과 정책의 상호보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전기 입시 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10.18(월) ~ 10.29(금)	2021.11.22(월) ~ 12.03(금)
고사장 발표	11.03(수) 15:00	12.08(수) 15:00
면접전형	11.06(토) 10:00 예정	12.1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17(수) 15:00	12.22(수)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22(월) ~ 11.26(금)	12.27(월) ~ 12.31(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제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 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원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증명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명(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변화하는 총장선거, 민주적 외대를 위한 첫걸음

우리학교는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학생총투표로 학생 총장 선출권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12대 총장 선거에서 대학구성원참여직 선제가 도입돼 △교수△교직원△학생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학생 투표 반영률은 5%로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5%의 투표권은 학생들이

원하는 총장을 선출하는 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우리학교 총장후보선출규정의 변화△학생 총장 선출권을 위한 최근 움직임△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총장후보선출규정의 변화

우리학교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해왔다. 김동선 제1대 총장과 황병태 제2대 총장은 이사회 내부 결정 후 선출됐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운 총장 선출 방식인 교수직선제가 도입됐다. 우리학교 교수직선제는 전체 교수진의 총장 투표로 상위 후보 2명을 선정한 뒤 이사회가 그 중 1명을 선출한다. 이에 박필수 3대 총장이 선출됐다.

우리학교의 학생 총장 선출권은 1995년부터 거론됐지만 2002년이 돼서야 총장 선출에 3주체가 함께해야한단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조규철 제6대 총장의 학생과 소통 부재로 재단 사유화 저지 투쟁에 실패했던 교내 여론이 있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학생 초청토론회를 진행했으나 당시 총장 후보자이자 이후 제8대 총장으로 선출된 박철 총장이 ‘비유권자가 참여하는 초청토론회는 무의미하다’고 발언해 여론은 더 악화됐다. 이후 기존의 투표방식에 이사장이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투표 결과를 반영해 안병만 제7대 총장이 선출됐다.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의 도입은 아니지만 학생이 총장 선거에 영향을 끼친 첫 사례다.

총장 선출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특히 2005년 박철 제8대 총장 선출 전, 교수와 노조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같은 해 9월 7일 총장 선출 논의를 위한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평위)를 열었지만 교수협회(이하 교협)는 이에 불참했다. 이후 대평위에선 총장후보자 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선준위)를, 교협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논의구조가 나뉘어 학내분쟁이 생겼다. 계속된 갈등에 안병만 제7대 총장은 △교협의 1차 투표로 후보자 선별△압축된 후보에 대해 각각의 구성원 또는 공동 정견 자리 마련△같은 날 · 같은 시간 · 별도 장소에서 투표 후 법인이 총장 선임△9대 총장은 모든 구성원이 합의해 새 방식을 도출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놔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2013년엔 10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양캠퍼스(이하 양캠프) 총학이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총장 선출권을 학생에게도 부여하란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재34대 총학 ‘채움’은 교협과 총장에 공문을 보내 학생 투표권을 요구했다. 이에 총선준위는 학생 투표권에 대한 차선택으로 학생대표자에게 초청토론회 방청 기회를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학생 총장 선출권을 위한 최근 움직임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제53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글캠 제40대 총학 ‘리액션(레:action)’이 2019년 10월 31일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뒤를 이어 설캠 제54대 총학 ‘새벽으로부터’와 글캠 제41대 총학 ‘더본(The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안 정비에 힘썼다. 이번 해 시행한 온라인 학생 총 투표 결과, 재학생의 54.01%에 달하는 4,254명이 투표했고 그중 4,181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에 이번 제12대 총장 선거부터 학생이 투표권을 얻게 됐다. 현재 양캠프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대표 10명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로 활동하며 6차 회의를 마쳤다. 선거중앙운영위원회도 1차 회의를 마친 상태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선위원회’를 거쳐 투표 반영률을 △교수 90%△교직원 5%△학생 5%로 결정했다. 투표 반영률 논의가 시작된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선위원회’ 3차 회의부터 학생대표 측은 1:1:1 반영률을 주장했다. 이후 현실적으로 학생과 직원을 합쳐 약 25%의 투표 반영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수 측은 단호히 거절했다. 거절 직후 학생 측은 타 학교 학생 투표 반영률을 고려해 최소 8%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직원 측도 8%를 요구했지만 교수 측에선 학생과 교직원을 합친 비율이 10%를 넘길 수 없단 의사를 내비쳤고 현재 투표 반영률이 확정됐다.

이에 외대학보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차기 총장과 학생 투표 반영률’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총장 선거 시 주어지는 학생 투표권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6.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56.3%의 학생은 ‘학생 권리 보장’을 들었고 37.5%는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 견제’를 꼽았다. 총장 선거 내 학생 투표 반영률 5%에 대해서 78.4%의 응답자가 불만족했다. 또한 약 55%의 응답자가 최소 학생 투표 반영률을 10%에서 30% 사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장 자질 평가 시 가장 우선시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에 대해 △‘학생과의 소통’ 37.8%△‘학교를 위한 공약’ 35.1%△‘공약의 실현

구분		방식	대학수	비율
원전임명제		법인에서 직접 총장임명	57	61.3
직선제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	△교수△교직원△학생△동문 등의 직접선거로 총장후보자추천 → 이사회에서임명	4	4.3
	교직원직선제	△교수△교직원 직접선거로 총장후보자추천 → 이사회에서임명	2	2.2
	소계		6	6.5
	간선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등에서 총장후보자추천 → 이사회에서임명	24	25.8
간선제	간선대의제	선출위원선정 → 선출위원이 총장후보자추천 → 이사회에서임명	2	2.2
	소계		26	28.0
기타			4	4.3
합계			93	100.0

▲교육부 2020년 기준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

가능성’ 27%의 응답을 얻었다.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공약에 대해서 ‘학제개편’과 ‘캠퍼스 간 균형점’을 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김운경(자연 · 화학 20) 씨는 “그동안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우리학교의 사업이 진행됐다”며 “학생의 투표 참여로 그동안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국 · 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를 도입한 사례는 매우 적다. 사립대학 중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를 처음 도입한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다. 이화여대는 ‘정유라 입학 비리 사건’으로 인해 최경희 전 총장이 불명에 퇴진하면서 제16대 총장 선거부터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를 도입했다. 투표 반영률은 △교수 77.5%△교직원 12%△학생 8.5%△동창 2%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성신여대)△상지대학교(이하 상지대)△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가 그 뒤를 이었다.

국 · 공립대학의 경우 학생 투표 반영률은 1.6%에서 13% 사이에 분포하며 앞서 말한 네 대학은 △상지대 22%△성신여대 9%△이화여대 8.5%△숙명여대 7.5%의 학생 투표 반영률을 가진다. 상지대의 22%의 반영률은 매우 이례적이다. 타 학교 또한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측이 5%를 제시한 경우가 많았지만 첫 투표 후 논의를 통해 학생은 5% 이상의 반영률을 얻었다.

학생 투표 반영률이 미비하던 점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우리학교는 교수의 1표가 학생의 12표와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수△교직원△학생으로 구성된 3주체가 투표에 참여하긴 하지만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수에 따라 투표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단 것이다. 김인철 현 제11대 총장(이하 김 총장) 선출 당시 상황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인경(국제스포츠 12) 골프선수에 대한 학점 특혜 의혹이 있던 김 총장에 학생들은 반감을 표했다. 제11대 총장 선거는 교수직선제로 진행됐지만 설캠 제51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학생의 여론을 파악하고자 학생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1차 교수 투표에선 김 총장이 1등을 차지했지만 1차 학생 모의투표에선 5등에 그쳤다. 그러나 학생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 총장이 선출됐고 이에 비대위는 ‘김인철 총장 연임 반대 연서명’을 하며 반대의 뜻을 내놨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를 도입한 4곳의 사립대학은 계속해서 학생 투표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숙명여대 총학은 학생 투표 반영률 25%를 가지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화여대도 반영률을 25%까지 늘리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주원(영어 · ELIT 18)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이 회장)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공개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총학 별도로 후보자와 함께하는 기획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김운유(통번역 · 영어 15) 글캠 총학생회장도 “다른 주체를 고려하지 않는 교수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며 “말뿐인 3주체 참여가 될까 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이 원하는 점을 취합한 뒤 이를 총장 후보자에게 전달해 협약을 진행하고 캠퍼스별 후보자 토론회를 여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제12대 총장 선거는 이번 해 11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제12대 총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97.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생이 원하는 총장 선출을 위해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회장은 “학생을 위해 제시할 학생 · 교육 분야 공약과 학생 사회 내부의 참정권과 학교 운영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직원이 총장 선출권을 얻으며 우리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에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총장 선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3주체 간의 끝없는 논의가 필요하다.

애매한 기준 속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기 위해선

지난달 31일 한국항공대학교(이하 항공대)에서 학생들이 단체채팅방(이하 단톡방)을 통해 성희롱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로서의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발생 이후 학생사회에선 가해

자로 지목된 이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성립 조건△교내 성범죄 인식 및 대처△나아가야 할 방안을 알아보자.

◆불분명한 디지털 성범죄 성립 조건

최근 단톡방 성희롱 사례가 증가하며 일각에선 디지털 성범죄 인식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96%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3월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디지털 성범죄란 명칭으로 통일했다. n번방 사건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텔레그램 특성상 사용자의 기록이 남지 않아 n번방 사건이라 불리게 됐다. n번방 사건의 가해자는 단톡방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했고 비슷한 형태의 채팅방이 급속도로 증가해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다. 가해자는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이를 알게 된 국민은 분노했다. 이에 국회에선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n번방 방지법에도 빈틈은 존재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촬영 △성적 촬영물 유포△음란물 소비에 대한 처벌만 포함됐을 뿐 단톡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하 단톡방 성희롱)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단톡방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사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사건이 벌어진 단톡방에 속해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단 것이다.

이에 모든 범위의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던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해 11월 청주교육대학교(이하 청주교대) 본관과 체육관엔 단톡방 성희롱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해당 대자보에 따르면 5명의 남학생이 단톡방에서 여학생의 사진을 올리고 돈을 걸며 외모 비하를 하거나 성적 대상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청주교대 측은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피해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항공대에서도 학생들이 단톡방 내에서 성희롱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가해자들은 '누드사진을 확보해 협박하는 방법'에 없다, '첫 경험에 임신해 버리면 어떡하지' 등 일면식도 없는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톡방 성희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아 가해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의 징계뿐이다. 이마저도 학교마다 다른 징계 수위로 인해 혼란을 빚어냈다.

◆우리학교 재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은?

지난 1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항공대 단톡

방 성희롱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몇몇 학생은 가해자가 잘못된 성인식을 가졌으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은 해당 사안이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 범죄로 인식하긴 어렵다며 엄정한 처벌은 불필요하던 의견을 비쳤다.

이에 외대학보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우리학교 재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어떤 말과 상황이 사이버 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54.6%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한 SNS 이용 중 얼굴에 관한 평가도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40.9%는 'SNS 이용 중 노골적 신체에 관한 표현만이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4.5%는 'SNS 이용 중 발생한 얼굴에 관한 평가와 노골적 신체에 관한 표현 모두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7년 우리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영어대학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우리학교 영어대학 성희롱 사건 진상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외대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게시돼 공문화됐다. 진조위에 제보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는 총 37명으로 이 중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가해자는 12명이다. 이들은 오프라인 및 단톡방 성희롱을 일삼아 △성행위를 부추기는 발언△피해 학생의 성적 대상화 발언△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 가해자는 제32대 영어대학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공개 사과문을 작성했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교내 성상담센터에서 수차례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가을 미투 운동이 국내에 퍼지며 우리학교에도 성평등센터가 개설됐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성평등센터 교직원 A 씨에 따르면 "당시 학내 규정도 미비해 사건 처리 과정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해당 사건은 신고인의 요청으로 조사가 중단됐고 피신고인은 재발 방지 특별교육을 이수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안

이번 해 우리학교 성평등센터에선 '디지털성폭력의 이해와 예방'이란 소책자를 제작했다. 하지만 해당 책자엔 단톡방 성희롱에 관한 교육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n번방 사건이 큰 관심을 받아 n번방 사건 위주의 교육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 A 씨는 "이번 해 온라인 교육에 단톡방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건 어렵다"며 "보완책으로 대면교육 시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한 소책자를 배부하겠다"고 전했다.

외대학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4%가 '투명한 조사 과정 공개 및 가해자의 공개적 사과'와 '퇴학과 정학 등 강력한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

다. 또한 응답자의 22.7%는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학교에선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간분리 △수업분리△접근금지 등의 부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심신을 회복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회복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A 씨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SNS상에서 가해자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해당 조치는 가해자의 인권 침해와 양심의 자유에 반해 명예훼손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성범죄 사건의 처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이 밝혀지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인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될 경우 2차 가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성평등센터와 양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성폭력센터에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지만 학내구성원의 인원이 많아 부득이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더불어 교직원에게도 방학에, 신입생에게도 학기 초 별도의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2018년 설캠 제 52대 총학 '푸름'은 '학생 사회 내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토대'란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총학만의 재학생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설캠 총학 '외대에게'는 "현재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상을 고려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다"며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글로벌캠퍼스 총학 '온(ON)'은 "교내 인권 문제에 관해 성평등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작다고 느꼈다"며 "통합인권센터를 설립하려고 건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단톡방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학내 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전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팀장은 "가해자 처벌 권한을 가진 집단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사회에서 해당 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 피해 사실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을 다시 한번 개선해야 할 때다.

이탈리아에서의 달콤한 인생(La Dolce Vita)

대학 입학 후 치열하게 달려온 내겐 반환점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러던 와중 로마에서 수업을 들으며 생활하고 싶단 생각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그 후 2018년 2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로마국립대학교(Sapienza Università di Roma)(이하 로마국립대학)로 떠났다.

로마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매 순간이 새로웠다. 로마국립대학은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 거주할 곳을 미리 구해야 했다. 그러나 막연한 자신감으로 개강 전 일주일간 지낼 방 한 칸만 구한 채 로마에 도착했다. 현지 중개인과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가격△거리△청결도△치안△학교와의 거리 등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는 팬츠는 숙소를 찾기 어려웠다. 다행히 교환학생을 다녀온 선배의 소개로 수녀원에서 한 달간 머물 수 있었다. 짧은 수녀원 생활이지만 가톨릭 국가의 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고 이탈리아어로만 소통해야 하는 환경에서 현지생활을 시작했던 점이 뜻깊었다.

로마국립대학에선 시간표를 확인하고 원하는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후 수업의 수강 여부를 선택했다. 한국과 달리 별도의 수강신청은 없었고 학기 말 시험을 통과하면 학점을 인정받았다. 여러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후 △교환학생을 위한 이탈리아어 B2△이탈리아 영화△현대미술 수업을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학점으로 계산하면 21학점이었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



공부시간도 학점에 포함시켜 실제 수업시간은 절반 정도였다. 물론 현지인과 같은 속도로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수업에서 만난 교환학생과의 자료 공유△영어 원서 읽기



△옆자리 친구에게 질문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다행히 시험을 통과했다.

수업 후엔 △그리스△슬로바키아△영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학교 앞 서점과 음식점이 모여 있는 거리에서 식전주인 아페리티보(aperitivo)를 함께 마시거나 로마에서 열리는 여러 전시회를 봤다. 가끔은 혼자 작은 식당부터 한적한 광장까지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멍하니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길거리에서 먹던 젤라토와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약기 연주 소리 모두 로마만의 정열적이고 동화적인 분위기 속에 있

었다.

수업이 없는 날엔 이탈리아 내 다른 도시와 유럽의 여러 국가를 여행했다. 여행비용 마련을 위해 점심엔 샌드위치와 에스프레소를 먹고 저녁엔 집에서 파스타를 해먹으며 돈을 아꼈다. 제일 싼 비행기 표를 구매한 후 공항 숙소와 다인실 게스트하우스 이용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 번은 혼자 이탈리아 소도시로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와 친해진 당일 이탈리아 가족행사를 함께 하는 신기한 경험도 했다.

로마의 다소 느린 행정 절차와 몇몇 인종차별 등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교환학생을 떠난 것은 대학생들 중 최고의 선택이었다. 개인적으로도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다른 학우도 우리 학교만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

노우진(통번역 · 이탈리아어 17)

일본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만 바라봤을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들여보지 못한 대학생은 별로 없을 것이다. 1776년 애덤 스미스는 본인의 저서 '국부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경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조정하고 국가의 경제 효율은 극대화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은 경쟁 사회의 찬양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철폐를 외쳤다. 하지만 정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 추구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을까? 또한 애덤 스미스는 규제 완화론자였을까? 일본의 경제학자 도모 다쿠오(이하 다쿠오)는 책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애덤 스미스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다쿠오는 본인만의 관점으로 애덤 스미스의 주요 저작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요약해 각각 1부와 2부에 서술한다. 다쿠오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을 현명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파악했다고 한다. 인간은 공감을 통해 타인의 처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현명한 면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이룩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발현된다. 반면 인간에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연약한 면도 있다. 이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야심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부가 잉여 자본을 창출해 하층민에게까지 이득을 주는 사회적 선순환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부를 축적하려는 야심과 경쟁은 정의감에 의해 제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질서를 어지럽혀 사회 번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국부론에선 부를 모든 사회 계층의 연결 수단으로 봤다. 시장에선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노동력과 임금을 교환하는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이 같은 호혜적 관계가 유지되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유층에 쏠린 힘이 언제든 지 관계를 지배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시장은 어느 정도 정부에 의해 감시되고 법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 책은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다뤄진 논의를 사회질서와 번영에 관한 하나의 사상 체계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독자들은 지금껏 알던 애덤 스미스와 다른 면을 곱씹어보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기 바란다. 또한 평소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던 독자에게도 이 책을 추천한다.

정병비 기자 02jbb@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1주년 기념 '캠퍼스 SSUL展'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②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명수당 이야기

이름답기로 손꼽히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가 자랑하는 수려한 자연 경관 중 백미는 명수당이다. 명수당은 글캠 설립 초기인 1986년 9월 조성된 인공호수로, 캠퍼스의 중심에서 사계절의미를 뽐내는 고즈넉한 휴식장소다. 명수당의 이름은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란 뜻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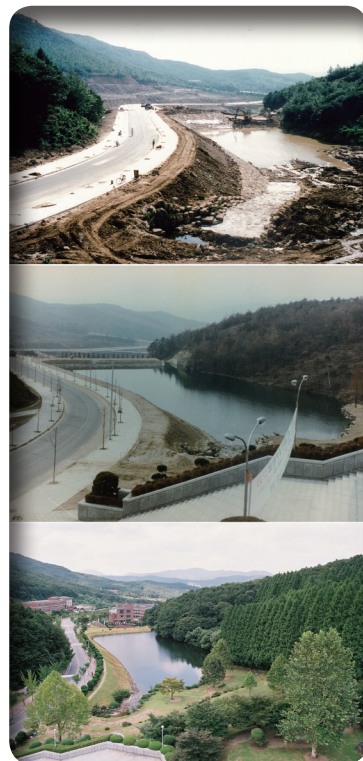
는 중국 고전 장자(莊子)속 '명경지수(明鏡止水)'란 구절에서 유래했다. 학생들이 고요하고 맑은 호수 같은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길 바라는 우리학교의 바람이 담겼다. 과거엔 학과의 개강 및 종강 총회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축

제기간엔 번지점프와 보트타기 체험장소가 되는 등 무한한 시공을 받는 장소였다.

이런 명수당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명수당에서 굿이 벌어진 적이 있던 사실이다. 명수당의 수심이 깊어 익사사고가 종종 발생하자 1999년 사고를 방지하고 그동

안의 사고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굿이 진행됐다. 당시 김유감 중요무형문화제 104호 보유자가 '서울새남굿'을 진행했는데 굿을 한 이후엔 명수당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매해 3월 학교에 입학하는 새 내기가 꼭 거쳐야 하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명수당 뒤편에 위치한 폐건물에 방문하는 것이다. 온갖 무서운 소문과 함께 답력 시험 장소로 여겨지는 이 건물은 몇 해 전까지 청람재의 학생이 거주했던 기숙사였다. 현재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아 건물 일부가 철거돼 주택만 남았다. 빈 건물에 상상력이 더해지는 바람에 지금은 새내기 답력체험의 명소가 됐다. 명수당과 관련된 소문은 이뿐만이 아니다. 명수당에 빠지면 현존하는 모든 질병에 다 걸린단 괴소문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문과 달리 명수당의 수질은 2급 수로, 깨끗한 물에서만 보이는 다양한 물고기거사는 맑은 호수다. 앞서 언급했던 익사 사고로 인해 학생의 명수당 입수가 금지되자 이런 소문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글로벌 캠퍼스 명수당 변천



▲명수당-미생물 (출처 외대학보 제968호)

명수당은 연구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2014년 2월 발표된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명수당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미생물이 발견됐다. 이 미생물은 지역 지명을 따서 'yonginensis', 'wangsanensis'란 학명이 붙여졌다.

명수당은 △만남△즐거움△휴식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캠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장소로 기억되길 바란다.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명수당 레프팅



▲명수당 뒤편 옛 고시반 기숙사 건물

mRNA 백신, 신약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지난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변이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하 델타 변이)의 확산이 시작됐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기존 백신에 내성이 있어 백신 효과를 낮춘다. 이번 달 2일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뮤(Mu) 변이도

등장했다.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중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속한 mRNA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박중찬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를 만나 mRNA 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박중찬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Q1. mRNA 백신의 작용 기전이 궁금합니다.

mRNA는 DNA 유전정보를 리보솜이란 세포 소기관에 전달합니다. 리보솜은 전달받은 DNA의 유전정보를 읽으며 단백질을 만들어 내죠. mRNA 백신은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S(Spike)-단백질이 바이러스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은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핵심 표적으로 S-단백질을 사용해요. S-단백질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mRNA를 몸에 주입하면 mRNA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 S-단백질을 만듭니다. 우리 면역체계가 이 단백질에 대한 면역반응이 생겨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유도하는 거죠.

Q2. mRNA로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mRNA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만들기 수월해요. 유전정보인 DNA 염기서열 파악이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mRNA 백신 생산은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mRNA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변이가 생기면 바뀐 유전정보를 반영한 mRNA를 바로 만들면 돼요. mRNA를 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인 나노 인지질 물질도 기존에 허가받은 물질을 사용하면 되니 임상시험을 대규모로 하지 않더라도 변이 백신 제작이 가능합니다.

Q3. 최초의 mRNA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mRNA 백신이 나오지 않았나요?

안전성과 생명과학 기술의 부족 때문입니다. 의약품은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백신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하기 때문에 허가 기준이 매우 엄격하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신규물질의 경우 안전성 평가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백신에 사용된 mRNA와 전달체 모두 의약품으로 신규물질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또한 mRNA 백신 개발을 위해선 △전달체 생산△전달체 결합△mRNA 대량생산 등 필수적인 생명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 개발이 최근에 이뤄지면서 mRNA 백신이 나오게 된 거죠. 모더나 백신 또한 암 예방 및 치료용으로 연구하던 기술을 코로나19에 적용해 만든 거예요.

Q4. mRNA 백신은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항원 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 과민반응인 ‘아나필락시스’



▲mRNA 백신의 모습(출처: 픽사베이)

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백신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후 20분 정도 병원에 머물다 가도록 하는 거예요. mRNA 백신이 다른 종류의 백신에 비해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mRNA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기존 백신에선 mRNA 전달체가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세계적 위기 상황 속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백신 이상 반응이 없는 제형을 만들기엔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상 반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니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전한 백신이 만들어질 거예요.

Q5. 코로나19 백신 중 DNA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하 AZ 백신)과 mRNA 백신인 모더나와 화이자

S-단백질을 만들어 면역반응을 유도한단 공통점이 있지만 백신의 제형이 달라요. mRNA 백신은 S-단백질의 유전정보를 가진 mRNA를 전달체로 감싸 세포로 주입합니다. 그에 반해 AZ 백신은 인체에 들어가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게 만든 ‘하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해요. AZ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의 DNA 유전체에 S-단백질 유전자를 삽입시킨 변형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겁니다. 변형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 속에 들어가 정상 세포를 감염시켜요. 감염된 세포 속 S-단백질 유전정보는 mRNA를 거치며 리보솜에 전달되고 리보솜은 S-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Q6. mRNA 백신은 2차까지 접종하는 반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얀센 백신의 경우 1차만 맞아도 접종이

완료됩니다. 백신의 추가 접종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약사의 백신 개발 전략 차이예요. 제약사는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백신 접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 정도를 형성하면 이 기준에 맞춘 시장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얀센 백신은 2번 맞는 것보다 1번 맞는 것이 더 시장 친화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면역 활성화 강도는 추가 접종을 하면 더 강해져요. 그래서 2회 접종 백신보다 1회 접종 백신이 면역 활성화와 안전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차 접종 시 항원의 양을 많이 넣으면 면역반응은 증가할 수 있으나 이상 반응도 커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약사마다 백신 접종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Q6-1. 최근 mRNA 백신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습니다. mRNA 백신 접종 간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반적으로 추가 접종은 3주에서 4주 후에 이뤄집니다. 이보다 접종 간격이 짧아지면 1차 면역반응이 2차 접종 효과를 떨어뜨리지만 2주 정도 길어지는 건 면역 발생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간격이 6개월 이상으로 벌어지면 1차 면역으로 생긴 면역 기억세포가 사라져 추가 접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백신 접종 간격은 백신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코로나19 mRNA 백신의 경우 급하게 제작됐기에 이상적인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Q7.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성공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백신 개발 플랫폼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백신 개발 분야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mRNA 백신의 안정성이 더 높아지면 앞으로 많은 백신이 mRNA 형태로 제작될 거라고 봅니다.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겠죠. 코로나19의 심각성으로 인해 mRNA 백신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의 기간이 걸리는 백신 의약품 허가를 1년 만에 통과했어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mRNA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으니 앞으로 이를 다른 질병에 적용하는 것도 쉽게 허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과기부가 승인한 한국 최초의
블록체인 부문 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5주년을 축하합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벼랑 끝에 몰린 아이들

지난달 27일 20개월 딸을 성폭행 후 살해한 양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었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증가했다. △코로나

19로 증가한 아동학대의 실태△이번 해 개정된 아동보호 특례법△아동학대 최소화를 위한 방향에 알아보자.

◆증가한 아동학대, 감소한 신고건수 증가폭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42,251건으로, 2019년 대비 2.1%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해 꾸준히 증가하던 신고건수 증가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소한 이유는 아동학대의 절대적인 감소가 아닌 이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포함한 공립 교육기관과 학원 및 돌봄교실 등의 사립 교육기관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보호자의 양육 부담과 아동에 대한 폭력 위험이 증가했다. 지난달 2일 국내 아동 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의 경제력이 약화했고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아동에 대한 폭력행위가 증가했다.

열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환경도 상황에 심각성을 더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건수는 매해 급속도로 증가 중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70여 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관 한 곳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르는 아동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경기도 소속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A 씨는 “아동학대 담당 인력 1인당 아동학대 사건을 평균 40건 이상 맡고 있다”며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해 아동 모두에게 신경을 쏟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약 1년 반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와 아동보호상담원은 보호 체계 없이 현장에 나가 △가정방문△센터 운영△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수행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 백신 예약 및 접종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그들은 지난해부터 이번 7월까지 백신 접종 없이 계속해서 현장에 노출됐다. 서울시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B 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 6시간 이상 현장에 나가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회복지사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아이들이 아동보호센터에 오지 못하고 결국 수많은 아동의 돌봄에 심각한 공백이 온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지난달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1차 우선 접종이 뒤늦게 시작됐다.

◆이번 해 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 존재한다. 이 중 아동학대 특례법이 이번 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엔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인력 보충△피해 아동 즉각 분리 보호조치 가능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을 학대 후 살해한 경우 학대 행위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에도 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달 13일 3살 딸을 집에 방치해 고온으로 사망케 한 학대 행위자에게 ‘아동학대 살해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사법경찰의 아동학대 교육이 의무화되고 교육 시간이 늘어났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1명당 연간 50건의 사례를 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아동보호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즉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실행되는 것 역시 눈여겨볼 점이다. 이전과 달리 법원이나 정부의 허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국내·외)	19,214	29,674	34,169	36,417	41,389	42,251
아동학대 발견율	1.32	2.15	2.64	2.98	3.81	4.02

▲출처: 보건복지부

(단위:건/%)

가가 없어도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반복되면 즉각 분리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보호 현장에선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을 보호할 센터가 부족해 원가정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김민정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기관장은 “아동 센터 및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에선 신규 분리보호 아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기존 아동을 전원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력과 보호시설 확충 등의 인프라가 담보되지 않은 즉각 분리는 결국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분리’란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단 지적을 받는다.

◆학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제 사회에서도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세계 최초로 아동학대법을 제정한 스웨덴에선 강력한 입법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단체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아동에 대한 모든 처벌이 금지된다. 미국은 아동학대 미수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을 동일하게 처벌해 아동학대 범죄 성립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아동을 정서적으로만 학대해도 최고 10년 형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일

명 ‘신데렐라법’을 제정했다. 동화 ‘신데렐라’처럼 물리적 학대가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아동을 무시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2019년에서야 방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강력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동의 정신적 학대 피해에 대한 제도가 부실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국내 아동학대 방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과 예산 부족이다. 이번 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투입되는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285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인 82조 5,269억 원의 0.03% 수준이다. 또한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총 400여 명에 불과하다. 전체 229개 지자체 중 102곳의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지난 1월 기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자체 127곳 가운데 최소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87곳으로, 10곳 중 7곳에 달한다.

부족한 피해 아동 쉼터 시설 역시 주목해야 할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20개소, 피해 아동쉼터는 240개소 수준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쉼터 설치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탓에 서울시와 인천시에선 설치를 포기한 사례도 발생했다. 심지어 기존 쉼터 중 16곳은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하고, 14곳은 전·월세 등 계약 문제로 추후 주거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 행위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아동이 거주 중인 아동보호쉼터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4곳이나 존재한단 것이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턱없이 부족한 쉼터 설치비 인상 없이 쉼터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다음 해 예산 책정서엔 △관련 예산 615억원으로 확대△아동쉼터 35개소 확충△준공 15년이 경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보강△아동학대 현장직원 근무 여건 개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약 300여 명 확충이 포함됐다.

이번 해는 우리나라가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30년이 된 해다.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도 성인과 동등하게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임을 명시했다. 코로나19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무엇을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www.사사한줄토픽.com

정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이어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 전 총장)에게 고발 사주 의혹이 일어났다. 지난해 4월 3일 윤 전 총장이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유시민△최강욱△황희석 의원과 윤 전 총장의 최측근에게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김용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에선 고발장에 대해 “신빙성 없는 과문서”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사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도처에서 불만의 목소리 제기돼

이번 달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납입액 기준 하위 88%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25만 원 수준의 현금성 지원 방식이 채택됐다. 그러나 건보료 기준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국민 중 본인이 지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9일 오후 4시 기준 5만 건을 돌파했다.

경제 금융플랫폼 서비스 규제, 네이버·카카오 시가총액 감소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 빅테크 기업의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규제하겠다고 전하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 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이란 이유로 금융 규제에서 예외로 둘 순 없단 입장을 밝혔다. 이 방침으로 인해 두 회사의 시가총액도 감소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73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8조 원 하락했고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68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11조원 하락했다.

국제 미국 남부 버지니아 주, 인종차별 상징 ‘로버트 리 동상’ 철거

이번 달 8일 오전 미국 남부 버지니아 주의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철거됐다. 로버트 리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다. 남북전쟁 종전 25년 후 1890년에 그의 모습을 본뜬 동상이 세워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격화되면서 인종차별을 옹호했던 남부군의 상징인 이 동상을 철거해야 한단 여론이 생겨났다. 흑인 인권운동가 게리 플라워스는 이에 “드디어 뱀의 머리가 제거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과 상생을 위한 길은?

최근 각종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배달△쇼핑△택시와 같은 일상생활 영역에서부터 △법률△부동산△세무△의료 등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의 삶에 깊숙이 침투했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의 △

독과점△미흡한 노동자 보호△수수료 인상△전문직과의 충돌 등의 문제도 함께 대두됐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 배경△현황△문제점△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

플랫폼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기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며 전 세계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됐다.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역에서 승객이 기차나 버스를 타고 내리는 장소’를 뜻한다. 그러나 최근 비즈니스 측면에서 플랫폼은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돼 상호작용하며 서로 원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으로 정의되고 있다. 2019년부터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7개에 달하며, 이들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5조 1,243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25년경 디지털 플랫폼이 창출할 매출액은 60조 달러로, 전체 글로벌 기업 매출액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크게 부상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산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에서 이뤄진 총 거래액은 126조 원 규모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둔 기업 수는 지난해 대비 123개 늘어난 678개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으로 △네이버△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카카오△쿠팡 등이 있다. 해당 기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배달 음식 주문△숙박 예약△택시 및 렌터카 호출 등 실시간으로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 공급자는 서비스를 노출하는 효과로,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각각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확대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문제점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과 동시에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먼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이 각종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할 경우 독과점으로 변질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초반엔 무료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뒤 일방적인 유료화 및 가격 인상을 단행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단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매출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1.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52.7%까지 높아졌다. 택시 호출 플랫폼의 경우 현재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전국 택시기사 25만 명 중 23만 명이 카카오T에 가입했으며 이번 해 7월 기준 앱 가입자 수는 2,800만 명에 이른다. 택시 시장을 점령한 카카오는 지난달 ‘스마트 호출’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 조치란 비판을 받고 백지화됐다. 음식 배달 플랫폼의 경우 배민은 전체 시장 점유율 6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배민은 주문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새 요금

체계를 발표했다가 소상공인의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 등으로 이를 철회했다. 여론의 못매를 맞았던 배민은 지난 6월부터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1’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배달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가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숙박업 플랫폼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숙박 업체들은 플랫폼을 거처야만 영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500개의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한 애로사항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 숙박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숙박 플랫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이른다. 그러나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단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해당 업체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상 자영업자의 특징을 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은 △4대 보험△산업재해(이하 산재) 보험△최저임금△퇴직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나 보험 포기 각서 등에 발이 묶여 산재를 신청하기 어렵다. 설사 산재 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승인 요건인 전속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47건으로 이전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산재 대처와 예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는 사건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이들이 높은 접근성을 가진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열악한 수준의 근로환경과 미비한 노동법이 그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의 갈등 또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법률△부동산△세무△의료 등의 전문영역에도 플랫폼이 들어섰다. △비대면으로 부동산 매매와 계약이 가능한 ‘직방’△중개 수수료 없이 변호사 정보를 안내하는 ‘로톡’△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짇삼’△풍부한 성형 후기와 투명한 성형 정보를 공개하는 ‘강남언니’가 바로 그 예다. 전문 영역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저렴한 가격을 통해 전문 영역 서비스를 대중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플랫폼으로 인해 전문 영역 서비스의 가격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경쟁이 시작되면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기존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알선하는 자에게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단 내용이 신설된 광고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며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세무사회는 삼짇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의사협회는 강남언니, 바비톡 등 미용·성형 정보 플랫폼의 활동이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와 수수료 할인을 내세운 △다원중개△집토스△트러스트 등 여러 부

동산 플랫폼을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각 전문 분야 이익 단체들과 플랫폼 업체 사이 고소 및 고발 등이 이어지며 법률 분쟁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편리함과 효율성 뒤에 가려졌던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작용이 점차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플랫폼 규제 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현역 의원 74명이 속한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번 해 국정감사 주제를 ‘플랫폼 경제’로 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을 부각하며 입점업체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달 7일엔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플랫폼 기업들과 충돌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를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이날 정부가 플랫폼 기업이 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책임을 준수해야 한단 입장을 밝히자 다음 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비즈니스의 독과점을 규제해 문제점을 바로잡겠다 단 법안도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용자의 편의를 떨어뜨리고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단 입장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일고 있다. 민주당에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에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변화하는 노동 시장을 고려하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해당 법안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배제하고 이들을 ‘제3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에선 법안이 사업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노사 양측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과 그 영향력을 인정하며 부작용 완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대립되는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워 보인다. △입법기관△플랫폼 기업△플랫폼 노동자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나뎌’ 이 ‘나 됨’ 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많았다. 초등학교 땀 김연아 선수를 동경하며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꿈꿨고 중학교 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보며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앉으리라 다짐하기도 했다. 하고 싶은 건 항상 많았고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정작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는 없었던 것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배와 ‘뒹어 죽어가는 아이가 앞에 있다면 그 장면을 방관하여 촬영해 기아의 위험성을 알릴 것인가 혹은 그 아이를 살릴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난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의 입장을 택했지만 선배는 나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둘은 오랜 시간 논쟁을 펼쳤고 그 대화 끝에 세상에 선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막연한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사회·문화 시간에 선생님이 성차별적 발언을 해 반 전체가 이의를 제기했던 적이 있다. 당시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며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단 사실을 모두가 알지만 정작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보는 다수의 시선이 모순돼 보였다. 여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페미니스트가 비난을 받는 것이 사회의 주된 입장이 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 인권 개선 행보가 더뎠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시간이 지나 이번 해 초 ‘월간 커넥트’에 ‘마이크로 샌델’ 교수가 출연해 사회적 모순 중 하나인 계층 상승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개인의 성공에 천부적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하위 계층의 계층 상승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성공에 대한 겸손한 태도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상을 보고 사회 모순에 대해 고민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적 모순에 대한 나의 경험들은 외대학보에 지원한 계기가 됐다. 외대학보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설다. 학보 방학 집중 교육을 마치고 처음 마감할 때 그동안 내가 학교란 사회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반성하게 됐다. 학교에 얽힌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학보 마감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학교와 학생 간의 의견이 대립할 때 학교와 학생의 입장을 비슷한 비율로 언급하는 것이었다.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학생 측의 의견을 더 높은 비중으로 작성하는 날 발견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회 모순을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됐다. 또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현상을 바라봐야 한단 것을 배우게 됐다. 처음 시작했던 그다짐 그대로 사실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기자로 활동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를 파고들고 싶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내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차승연 기자

[책 ‘네 이웃의 식탁’을 읽고] 이웃 공동체의 재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인사합시다’란 공지를 본 지 오래다. 언제부터 이웃 간의 인사가 어색해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옆집 사람의 눈을 피하기 바빠졌을까. 최근 전통적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며 이웃 간의 유대감은 약화됐다. 책 ‘네 이웃의 식탁’은 이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의 와해를 담았다.

이 소설은 서로 다른 네 가족이 꿈미래실험공동주택단지(이하 공동주택)에서 만나 일어난 일을 그린다. 정부는 저출산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젊은 부부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들을 모집한다. 경기도 외곽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교통이 열악하고 기반 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네 가족이 공동주택의 규칙을 정해 생활해야 했다. 거리가 먼 유치원 대신 공동 육아를 하던 ‘단화’의 제안으로 이들은 아이를 함께 키우기 시작한다. 공동 육아 과정에서 특정 가족이 지나친 역할을 맡기도 하고 한 아이가 다치는 등 누군가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공동 분리수거장 관리 문제로 ‘효내’와 공동주택 엄마들 간의 말다툼도 발생한다. 재택근무를 한단 이유로 혼자 육아까지 맡게 돼 24시간이 바쁜 효내는 정해진 분리수거장 청소 날에 참여하지 못한다. 효내는 다음에 혼자 청소하겠다고 사과하지만 엄마들은 효내가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를 비난한다. 크고 작은 사건들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인 세 가족은 공동주택에서 퇴소한다.

과거엔 살던 지역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 이웃 간의 정을 다

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배경도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이 드물다. 취직이나 신도시 개발과 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 살게 된 경우가 대다수다. 삶의 형태와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우린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이웃 간 거리를 현명하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실시간 강의를 들던 중 위층에서 1시간 넘게 들려온 소음으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결국 경비실에 연락해 조용히 해달란 부탁을 했다. 5분 뒤 가구 위치를 변경하고 있다며 미안하단 말을 전해 들었다.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갈등은 그저 불편할 뿐이다.

최근엔 갈등 상황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웃 간 친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갑작스런 친밀함과 소통을 요구하는 건 과거의 시대상을 현대에 억지로 맞추는 것과 같다. 이웃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과 유대감이 필요하다. 생활 반경을 공유하며 오는 자연스러운 이해로 서로에게 한 발짝 가까워지길 기다려야 한다. 오늘날부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 되돌아오는 인사가 쌓이며 우리의 공동체가 한층 화목해지길 바란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미나리’를 보고]

미나리를 위한 거름은 없다

영화 ‘미나리’에선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아빠 ‘제이콥’은 아칸소 주의 인적 없는 곳에 이동식 차를 두고 산다. 그는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는 동시에 한국식 채소를 재배하고 납품해 큰돈을 벌겠다는 꿈을 가지고 산다. 반면 엄마 ‘모니카’는 딸 ‘앤’과 아들 ‘데이빗’의 교육을 위해 도시에서 살길 원한다. 특히 데이빗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한다. 제이콥의 농사는 몇 번의 착오를 걸쳐 성공 가도에 오르지만 그늘수록 가족과의 사이는 멀어진다. 그러던 중 △부부갈등 △‘순자’ 할머니의 뇌졸중 △이민 적응 문제가 발생했고 데이빗의 건강 상태까지 악화하며 가족은 무너진다. 심지어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해 농작물이 다 타버려 납품이 불가능해지고 제이콥은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러나 제이콥 가족은 이 사건 이후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더 단단해진다.

이 영화는 가족 내부 갈등에 초점을 맞춰 이민자의 설움을 그려낸다. 또한 영화 속 언뜻 비춰지는 이민자들의 향한 차별은 그들이 외부로부터 겪는 아픔을 보여준다. 미국 사회는 해당 영화에 크게 공감했다. 전 세계 이민자의 19%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민자 문제는 그들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나리는 이번 해 미국 LA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이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미나리는 미국인이 투자하고 배급한 영화로 사

실상 미국 영화다.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이 한국인 이민자이고 한국어 대사가 많이 나왔단 이유로 외국어 영화로 분류됐다. 이 같은 미국의 모습은 ‘이민자의 나라’라 불리는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나리의 배경은 1980년대지만 지금의 아시안 이민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3월 16일에 발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아시안 혐오 범죄로서 미국 사회의 모순이 드러나는 예시다. 해당 사건에서 총 8명이 사망했고 그중 6명이 아시안 여성이다. 생존자는 ‘범인이 모든 아시안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란 목격담을 진술했다. 그러나 미국 경찰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성중독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아시안 혐오 범죄가 아니라 발표했다.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 태평양계 연합(AAPI)’이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범죄 방지 대책을 위해 만든 기구 ‘Stop AAPI Hate’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이번 해 2월까지 신고된 아시안 혐오 행위가 3,795건에 달한다. 이는 미국 사회 내 아시안이 받는 처우의 열악함을 상기시킨다.

미나리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민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에 다양한 인간이 살고 있단 점을 인지하는 게기가 되길 바라본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1058호 학보를 읽고

다채로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임채영(중국·중언문 19)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세상은 입체적이다.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 존재하기에 예단하지 않고 여러 각도의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언론뿐 아니라 개인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외대학보는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입장을 취재함으로써 학내 사안에 관해 독자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줬다.

3면에선 명확하지 않은 장학금 수혜자 및 조교 선발 기준 문제를 다뤘다. 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혼란을 겪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최근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갑자기 바뀐 방식에 혼란을 느낀 경험이 있다. 외대학보가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사를 다뤄주면 좋겠다.

4면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학교 수업방식과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다뤘다. 코로나19 이후 실시한 비대면 수업방식에 의미를 찾지 못해 휴학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나 또한 계속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휴학을 결정했다.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방식을 선호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수업 질 악화에 관해선 불만을 갖고 있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분명히 존재해 대면 수업 강행보단 수업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5면에선 이번 학기에 임기가 마무리되는 김인철 총장(이하 김 총장)의 공약이행도를 분석했다. 김 총장의 공약 이행도를 세 단계로 나눠 표로 깔끔히 정리한 게 보기 좋았다.

4면과 5면에서 다른 우리학교 수업방식과 김 총장의 공약 이행도는 학생들의 반응도 엿갈렸다. 하지만 그에 얽힌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살펴보니 코로나19란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던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사설에선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와 개인의 대응 구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역에서 수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기 위해 시민을 통제한 광경을 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길을 통제한 모습을 보니 섬뜩했다. 그러나 지난해 광복절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생각하면 필요한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다양한 면모가 드러나는 듯하다.

휴학으로 인해 학내 사안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저조해졌다. 그러나 외대학보란 연결고리를 통해 학내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학내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지향하며 독자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학내 언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외대학보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한다.

1058호 학보를 읽고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반복되는 새 학기

오신현(경상·국제금융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마스크 없이 외출하면 얼굴이 저전할 정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단 생각도 든다.

1058호에선 불미스러운 일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띈다. 일부 학과에서 조교 및 수석생 선발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학과(부)장특별장학금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단 불안도 존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은 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자 선발은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보인다. 추후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학기 수업방식 역시 쟁점이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며 대면 수업은 시기상조란 의견이 나왔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국내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해 수업방식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불만을 다룬 기사도 있다. 융인대 재학생은 △부족한 학습의 깊이 △선정적으로 결정된 커리큘럼 △융합학

사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융인대의 문제로 꼽았다.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할 좋은 기반이 형성되리라 믿는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의 임기가 8년의 시간을 거쳐 이번 학기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약 중 캠퍼스 증축과 적절한 예산 확보가 이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그래도 김 총장의 임기가 끝나가니 시원섭섭한 기분이 든다. 다음 총장이 업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마무리가 이뤄졌으면 한다.

이번 1058호는 추후 개선돼야 할 학교의 문제점이 다수 지목됐다. 무더운 여름을 보낸 후 맞이하는 이번 학기가 더 나은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관련 사항을 취재하는 기자의 노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빈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5%의 힘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해 3월 9일 치러질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떤 투표보다 의미가 무겁다. 그 무게에 맞게 각종 언론사는 차기 대선 후보와 그들의 지지율에 관한 기사를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부동산 폭등은 국민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안겼다. 차기 대권주자들은 국민의 요구에 맞는 공약을 내걸며 지지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투표는 우리의 삶에 공기처럼 공존해왔다. 어린 시절 좋아하던 연예인에게 상을 안겨주기 위해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문자투표를 했다.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다. 매해 우리 반의 반장 혹은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을 뽑기 위한 직접선거가 진행됐다. 모임의 저녁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일마저 거수를 통해 결정했다. 미성년자 시절 경험한 투표는 사실상 감정의 표출에 가까웠다. 노래의 질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수상 대상이 됐으면 했다. 반장선거에 간 친구의 공약과 상관없이 그 아이에 대한 호감이 크다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구를 뽑았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 투표권 행사의 의미는 이전처럼 가볍지 않다. 자신의 손으로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게 됐다. 이번 해 열릴 총장선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중요한 선거 중 하나다.

외대학보 1059호에 실린 총장선출권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김민주 부장 01minju@hufs.ac.kr

외대인의 목소리

독자 칼럼

돌아온 대선, ‘감언이설’의 진화를 기대한다

KBS 개그콘서트 속 ‘황해’란 코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영화 ‘황해’를 모방한 코너로 보이스피싱을 일삼는 중국 연변 거주 남녀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한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무원·기업 관계자 등으로 신분을 속인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입금을 유도하려 애쓴다. 그러나 어눌한 말투와 허술한 설정 탓에 매번 전화 상대방의 의심을 사고 만다. 그때마다 수화기를 올리는 다급한 목소리, “고맙님, 당황하셨어요?” 모자란 두 사기꾼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관객석에선 폭소가 터져 나온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TV 속 희극 소재가 될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범죄다. 해당 코너가 방영된 지 10년이 다 돼 가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 사이 국민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이제 잘 속지 않는다.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니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검찰에 출두할테니 대면조사 기일이냐 잡아달라고 응수할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범행 수법을 정교화하는 추세다. 최근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설문 조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범죄자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면 실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흡사한 모습에 무심코 개인정보를 보내기 십상이다. 보이스피싱법도 범행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셈이다.

말로써 상대방을 유인하고 움직이게 한단 점에서 정치도 일종의 보이스피싱일지 모른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정치인을 '사기꾼'에 비유한다. 선거철마다 온갖 갑언이설로 유권자를 미혹하고는 당선된 뒤 입을 싹 닫는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다. 기사엔 우리학교 총장선출의 역사와 학생 투표권을 얻기 위한 학생들의 고군분투를 담았다. 또한 재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은 어떤 총장을 원하는지 살펴봤다. 물론 학생의 총장투표권 반영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단 사실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많은 재학생은 낮은 수치에 불만을 표했거나 또 한이여 투감한다.

그러나 5%의 학생투표 반영률에 무조건적 비난을 쏟아내고 싶진 않다. 우리 아직 총장선출 시 학생의 투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 체감한 바 없다. 가시적인 숫자는 5%로,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학생투표가 총장선출의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할지 모른다. 물론 전체 구성원이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타사립 대학과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의 학생투표 반영률은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겐 시간이 남아있다. 이번 해 11월 29일 차기 총장선거가 진행된다. 높은 학생투표율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이 총장투표권에 얼마나 극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는지 가시적인 간절함을 보여줘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한 발씩 나아가며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다.

작금의 경선 판도를 보고 있으면 정치인을 보이스피싱범에 빗대는 게 오히려 피싱 중사자에게 실례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 정도다. 간간해진 범행 대상에 발맞춰 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유력 후보들의 정치 행보는 오히려 퇴행적이다.

4.7 보궐 선거 이후 새로운 정치 참여자로 급부상한 청년 세대 표심을 낚기 위한 여야 경선 후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집중팔구는 단순 이벤트에 그치지 일쑤다. 나이 지긋한 장년의 후보가 컴퓨터 게임을 일일 체험하거나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표절하면서까지 틱톡 영상을 급조한다. 급기야 한 유력 후보는 MZ세대를 '민지'로 의인화하며 자신의 진심을 궁서체라고 표현한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영상 속 후보는 회의 중 입을 닫고 있는 캠프 관계자를 향해 반말로 질책하며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까지 한다.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성향을 감안할 때 이 정도면 영상 기획자가 안티인지의 심된다.

작금의 정치적 피싱이 수포로 돌아간 이유는 국민의 검증 눈높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지며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세대는 자신이 세운 검증의 갈날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력 후보라도 절대 쉽게 표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비록 속내는 거짓일지언정 자신의 정치 철학과 국정 운영 방안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검증과 토론은 내팽개친 채 젊은 세대의 문화를 어설픔게 따라하는 정치인의 행태는 우스꽝스럽게 그치지않다. 경선 후보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 당황하셨나요?”를 외치기 전에 부디 ‘감언이설’이라도 제대로 해두길 각 캠프 관계자에게 조언해 본다. 보이스피싱도 완벽을 기하는 마당이다. 선거철 사기 수법도 이제 진화할 차례다.

김성식(영어 · 영어 16)

 십자말풀이

가로

1. 또한 고려대학교의 경우 국내 최초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을 실행 중이다. (1년 참조)
2. 글썽 폰트(ON)는 「교내 인문문제에 관해 성명등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 범위가 작다고 느꼈다」 며
「○○○○○○을 설립하고 그 능력이」 고 밝혔다. (5년 참조)
3. 이들은 결국 지난 7월 현재에 ○○○○을 올렸고 지난날부터
이동통신전문기관 중시자의 1차 우선 집중에 뒤늦게 시작했다.
(8년 참조)
4. 대법원장의 대변인은 결의 업무의 대외 공표와 홍보 사항과
관련해 ○○○○을 보좌하는 일일 담당자. (12년 참조)
5. 사업을 진행할 물리적 공간도 '문화상점 ○○○○' 건물
위주였던 지난 사업 때보다 확장된다.
(2년 참조)

세로

1. mRNA를 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한 ○○○○인 인질집 물질을
기존에 허가받은 물질이 사용되어 ○○○○인양을 대류무로
하지 않더라도 볼이 뻗는 자라나기 가능하다. (7년, 7천 초)
2. 한편 GTP 사립들은 ○○○○○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회화
시행하는 사립이다. (1년 초)
3. 1776년 애덤 스미스는 본인의 저서 '○○○'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한다. (6년 개)
4. 2019년부터 전 세계에 ○○○○상류 10개 기업 중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7개에 불과하며, 이들의 ○○○○ 합산액은
5조 1,243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9월, 7천 초)
5. 오늘날부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란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건 열매가, 되돌아오는 인사가 열매여
우리의 ○○○○가, 혹은 화목체면을 바란다. (10년 개)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아프간 특별공로자 입국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문제

지난달 26일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사업에 협력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했다. 총인원은 391명으로 이들은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병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대부분 의사와 간호사, 통역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그 배우자들이며, 입국자의 절반가량이 10세 이하의 어린이, 영유아이다.

한국에 도착한 과정은 기적에 가까웠다. 아프간 내전이 탈레반의 승리로 종결되자, 외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간 주민들의 해외탈출이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군수송기 3대를 인접국인 파키스탄으로 급파했다. 탈레반이 카불 전역을 점령한 상황에서 현지 조력자들을 카불공항까지 데려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과 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성공적인 이송은 국내는 물론 국외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이번에 도착한 아프간 현지인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이다. 한국 정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단기체류 비자를 발급한 후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가 부여된다. 현행 법령상 거주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여론은 이번 조치에 호의적이다. 자국에 장기간 협력한 현지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은 선진국의 관례이며 이웃에 대한 예의이다. 반면에 '특별공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은 난민에 대해 관대하지 않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당국의 고육지책이다. 시민사회의 비판은 크게 상반되는 두 개의 의견으로 요약됐다. 첫 번째 의견은 특별공로자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단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사회정착, 체류 안정 등을 보장해야 하며, 그들은 내국인과 같은 조건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반면에 인도적 또는 특별공로 체류의 경우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체류 조건이 좌우될 수 있다. 반대 의견은 이번 특별공로자 입국을 계기로 난민신청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한다. 2018년 6월 예멘 국적의 난민 560여명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도에 입국한 바 있다. 이들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2명에 불과했으나, 41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게 되어 국내 체류가 가능해 졌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 난민의 수용을 반대하는 청원에 70만 명이 넘게 동의하며 당시로써는 역대 최대 청원수를 기록하였다. 이 사례는 한국 사회 지저에 있는 '난민 포비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아프간 사태는 난민 문제가 우리사회에 직면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난민에 대한 우려는 크게 △유입증급△사회통합△자원소요 등에 대한 것이다. 난민 유입이 많은 유럽국가의 경우 2019년 자국의 인구 1,000 명당 1.5 명 정도의 난민이 유입되었다. 이 수는 전적으로 시리아, 이라크 등 유럽 외부의 정치적 불안에 의해 좌우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난민신청자 수는 420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16,1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 천 명당 연간 난민유입은 0.3명으로 유럽의 1/5 정도이다.

한국사회는 이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다원화되고 있다.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총인구의 4.9%인 250만 명에 이르렀다. 그 수는 더 늘어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기준은 혈통에서 문화 중심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어와 문화의 수용여부가 한국인임을 규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민유입의 경험이 많은 서구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편 다원화 사회에서는 모자이크 마냥 출신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소규모 공동체가 공존한다. 그 공동체조차 정착국의 사회, 문화적 가치에 일정부분 동화되기 마련이며, 이주민 집단의 공존과 동화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새로운 과제이다.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문제처럼 적응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본교에서는 국제지역대학의 주도로 지난 8월 난민문제를 담당하는 연구센터 '경계너머'를 창립했다. 난민이 직면할 문화·언어적 문제에 있어 본교의 특성을 살려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을 막는 데 주력하는 것은 현실 변화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아프간 특별공로자 입국을 계기로 난민 등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취업△통합 등에 대한 세심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1hyunik@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김현익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묵묵한 정의의 파수꾼 서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만나다.

서인선 대변인(법·법 92)(이하 서 대변인)은 2002년 검사에 임용된 후 최초의 여성 공안 검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검찰청△광주지방법검찰청△청주지방법검찰청을 거쳐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검사 생활 20년 만인 지난 6월 25일 대검찰청 대변인 자리에 올랐다. 20년의 세월 동안 검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서 대변인을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법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싶단 생각을 했어요. 대입 학력고사 당시 후기 모집 대학을 알아보던 중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우리학교 법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Q2. 대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1학년과 2학년 땀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겼어요.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 장학금을 받기도 했죠. 대학 시절에 연애했던 후배는 지금의 남편이 됐네요.

Q2-1. 기억에 남는 대학 시절 활동이 있나요?

△노래패 활동△농촌 활동△풍물패 활동△헌법학회에서 준비했던 헌법모의재판△형사법학회에서 진행했던 형사모의재판 등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Q3.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만 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공부했어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임했죠. 실력이 뛰어난 고시생이 많았기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Q4. 변호사나 판사가 아닌 검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한 것도 처음부터 검사란 직업을 묵

표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적 임무에 헌신하고 싶었어요. 판단을 주로 하는 판사보단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검사란 직업에 매력을 느꼈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던 건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Q5. 2003년 최초의 여성 공안 검사로 임명돼 화제가 됐습니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어떤 경험이었나요?

초임검사 시절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몰랐습니다. 검찰 역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여성 검사가 배치되는 일이었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검찰 내부에서도 기대가 컸던 만큼 어깨가 무거웠기 때문에 잘 해내야 한단 생각이 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엔 '역시 여성검사는 안 돼'가 아닌 '여성검사로 잘할 수 있구나'란 인식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여성검사에게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요. 지금은 많은 여성검사가 △강력△공안△특수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기량을 펼치고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Q6. 검사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법질서를 확립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단 열망이 강했죠. 범죄엔 단호하게 대처하고 피해자에게 따뜻한 검사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20여 년의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만났던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의아

니게 상처를 드린진 않았기를 바라요. 특히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Q7. 지난해 9월 기준 검사 내 여성의 비율은 32%이고 각각 △부장검사급 17%△차장검사급 8%△검사장급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남성이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검사 사회에서 느꼈던 힘든 점이 있나요?

남성 위주의 조직이다 보니 처음엔 업무나 생활에서 적응하기 힘든 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선배의 도움으로 차츰 적응이 됐죠. 검찰 조직의 여성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됐다고 생각해요.

Q8. 지난 6월 25일 대검찰청 대변인 자리로 인사이동이 발표됐습니다. 대검찰청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대검찰청의 대변인은 검찰 업무의 대외 공표와 홍보 사항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약 10년 전 대검찰청의 부대변인 업무를 한 경험이 있지만 대변인의 업무는 훨씬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것 같아요. 모쪼록 정확한 공보와 적절한 홍보로 검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검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Q9. 검사를 꿈꾸고 있는 우리학교 후배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초임검사 시절 한 선배가 '검찰은 작은 사람은 크게 만들고, 큰 사람은 더 크게 만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법집행△수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숭고한 직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국회△금융위△대검△법무부△법제처△의교부△헌법재판소 등 정부 부처 파견 근무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연구원△해의 주재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죠. 무엇보다 어느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훌륭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최고의 인재와 동료와 돼 함께 성장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고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후배들은 검찰에 도전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1791호(2021.05.13)

가장 빠른 모바일 투자 키움증권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식, ETF, CFD, 선물, 옵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원금조과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계좌진도가 유지중지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FX마진거래는 위탁수수료가 없으나 매매 시 호가 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합투자증권 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FD거래는 전담투자자료 동화된 고객만 거래 가능하며, 장외 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결제불이행, 파산 등)에 따른 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FD 주식수수료(0.15%) 및 금융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별도의 보수 또는 수수료(0.2~0.8%, 모뎀포토콜리오펀드 상이)가 발생합니다. 주식거래수수료는 0.015%이며,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는 투자권유 규제(적합성 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P수익률은 일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액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 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발생사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각 +0-순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법령 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주어지는 과세혜택 및 과세기준, 과세방법은 향후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 및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영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펀드(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에서 손실 발생시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